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과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련성 탐색*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Variables on Preschool Children's Self Regulation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시간강사 조 영 숙
교 수 이 양 희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Part time Lecturer : Youngsuk Cho
Professor : Yanghee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
| 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 결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odel for preschool children's self regulation by examining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variables on preschool children's self regulation. The subjects were 1219 mothers of 4- to 6-year-old preschool children attending kindergarten or child 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Korea. For data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were applied to the survey data in the first phase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nalysis in the second phase.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maternal behavior were the most direct influential variables on preschool children's self-regulation. Moreover, maternal parenting efficacy was indirectly mediated through maternal behavior.

주제어(Key Words) :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 양육스트레스 (parenting stress),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자기조절(self-regulation), 구조방정식(SEM)

Corresponding Author : Youngsuk Cho,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53 Myeongnyun-dong 3-ga, Jongno-gu, Seoul, 110-745, Korea Tel: +82-2-760-0719 E-mail: youngsuk7024@hanmail.net

*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임.

I. 서론

유아는 자라면서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Belsky & Rovine, 1990). 성장하면서 나타내는 유아의 자기 조절능력은 이후 청년기, 성인기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행동적,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기틀이 되기 때문에(Gralinski & Kopp, 1993) 사회화 과정에서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Bronson, 2000; Kopp, 1982)이다.

최근 보고된 자기조절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이 사회적 유능감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Diener & Kim, 2004; Lengua, 2003). 자기조절은 유아의 자발적인 사고의 점점 및 계획, 평가과정이 따르며(Bronson, 2000; Kendall & Wilcox, 1979; Kopp, 1982), 또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부분적으로 학습되며 지속된다는 것이다. 즉 자기조절 능력은 자신과 타인이 공유하고 있는 행위이자 대인간 현상이므로 사회문화적 발달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안미경, 1996; Kochanska, DeVet, Murray, & Putnam, 1994; Kopp, 1982).

다양한 환경 요인 중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첫 사회적 환경인 가정과 부모 양육관련 변인은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변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안미경, 1996; 양옥승, 이정란, 2003; Abidin, 1992; Kochanska *et al.*, 1994; Silverman & Ragusa, 1991). 자기조절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관련 연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은 주로 양육행동에 관한 것인데, 어머니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은 자기조절을 위한 자기점검과 자기평가의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양육행동은 자기통제, 협력, 외현적인 문제 행동 등을 포함한 아동의 자기조절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Bryant & Crockenberg, 1980; Cox, 1974; Crockenberg & Litman, 1990). 즉, 지시적이고 권위적인 통제 전략(directive, power-related control strategies)을 사용하는 양육행동은 명령이나 신체적 통제, 부정적이고 강제적인 목소리나 표현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언어적, 신체적인 벌의 사용은 아동기 행동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dds, 1987). 또한 부정적인 훈육 방법과 유아의 문제 행동사이의 관련성은 반사회적 아동의 가족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과 사회경제적 집단에서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Brenner & Fox, 1998). 반면에 강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시하려는 시도는 아동의 순응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

함으로써 아동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억제에 대한 인지적 과정의 모델로 삼을 수 있으며, 어머니의 민감성과 반응성(maternal sensitivity and responsiveness)은 아동의 순응, 협동심, 자율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Crockenberg & Litman, 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연관성이 강조되면서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경로를 모색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다.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아동의 기질, 성과 같은 개별적인 특성 못지않게 최근 중요하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부모의 인지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변인 중의 하나가 양육스트레스이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부모로서의 경험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Patterson (1990)에 따르면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사소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면 자녀에게 더 짜증을 내며, 이는 다시 아동의 공격적인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행장애 아동의 홀어머니를 대상으로 인과관계를 검증한 Snyder (1991)는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 처벌적인 행동을 유발하며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결과는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아동의 행동문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다른 태도나 변인이 관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행되어 온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연구자들은 양육행동의 결정인자의 경로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모델(Abidin, 1992; Belsky, 1984)을 제시하며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들은 확인되고 있지만 그 효과의 직접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Crnic, Gaze, & Hoffman, 2005).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인지적 측면의 변인으로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초를 둔 양육효능감은 부모역할에서 부모가 지각하는 확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역할의 결정인자(Johnston & Mash, 1989; Jones & Prinz, 2005; Teti & Gelfand, 1991)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연구자들(Bohlin & Hagekull, 1987; Coleman & Karraker, 2003)은 엄마로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자신이 좋은 엄마

가 되기 위해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 임신기말에 측정된 향후 부모 양육 기술과 관련된 확신이 출산 후 엄마로서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양한 부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결과에 대한 예측변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양육의 유능감에 대한 부모의 지각이 영아와의 경험 및 일반적인 자아존중감 측정치보다 엄마의 적용에 대해 현저한 예측변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선행변인으로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부모는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게 되며(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유우영, 1998; 최형성, 2001),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효능감이 낮을수록 양육행동에는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Ardelt & Eccles, 2001; Coleman & Karraker, 1997; Cutrona & Troutman, 1986). 요약하면,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자기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변인에 중대한 역할을 하며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 있어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연구에서는 평가 방법에 따라 양육효능감의 결과에 차이를 보인다는 문제를 제기(Conrad, Gross, Fogg, & Ruchala, 1992; Teti & Gelfand, 1991; Woodruff & Cashman, 1993)하고 있어 일치된 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행동과 기타 양육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경로의 분석은 아직까지 좀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유아의 자기조절에 관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과 유아의 자기조절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김은영, 2005; Snyder, 1991), 양육행동(김문신, 김광웅, 2003; 최지현, 2001)이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되고 있으나, 포괄적인 구조적 관계에서 성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서 주목할만한 결과는 유아의 자기조절이 연령에 따라 다른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만 4세-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에서 유아들은 만 5세를 기점으로 좀 더 사려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보고(이은주, 2004; Cole & Cole, 1989; Maccoby, 1980)하고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 유아의 자기조절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이 연령에 따라 유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변인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주

목하고 있다(조영숙, 이양희, 2007). 그러나 국내에서 보고된 어머니의 양육관련변인들과 유아의 자기조절 관련성 연구들은 자기조절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사회적 능력(김미화, 1997; 김현미, 2004)이나 적응, 공격성(윤진주, 강신영, 이복주, 2005)에 초점을 두거나, 양육관련 변인중의 어머니의 정서표현(김문신, 김광웅, 2003; 유은희, 임미옥, 2006; 한영민, 2005)과 같은 양육행동의 한 형태와 자기조절능력간의 관련성, 일반적인 양육환경(김혜순, 강기숙, 2005)이나 양육행동(박호선, 2002)등의 단편적인 탐색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며, 이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보고된 바가 적다. 이러한 이유로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들이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정도와 경로를 살펴보는 것은 자기조절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Kopp(1982)의 자기조절 발달단계에 따라 내적언어와 내적 조절이 가능해지는 시기인 만 4, 5, 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 양육관련변인으로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을 선정하고,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얼마나 잘 예측해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간의 구조적 관계는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유아의 자기조절에 관한 구조모형의 교차타당성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양한 서울시와 경기지역의 만 4, 5, 6세 아동의 어머니들을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예비검사시에 척도 개발을 위하여 서울시 내 3개구의 어린이집과 경기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표 1〉 본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구분	구조모형 개발 연구의 대상		교차타당화 연구대상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남	여	남	여	남	여
연령 및 성별	만4세	139(56.1)	109(43.9)	248(30.1)	54(27.8)	47(23.4)	101(25.6)
	만5세	111(46.6)	127(53.4)	238(28.9)	66(34.0)	71(35.3)	137(34.7)
	만6세	167(49.4)	171(50.6)	338(41.0)	74(38.1)	83(41.3)	157(39.7)
	총계	417(50.6)	407(49.4)	824(100.0)	194(49.1)	201(50.9)	395(100.0)

만 4, 5, 6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총 530명이 유의 표집 되었으나, 이 중 338명(64%)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응답자중 질문에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해당 연령에 속하지 않은 38명을 제외하여 총 3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시에는 어머니의 양육관련변인과 유아의 자기조절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지역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만 4, 5, 6세 아동의 어머니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그중 1219명의 설문지(81%)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해당연령이 아니거나 누락된 문항이 있는 281명을 제외하여 총 1219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1219명 중 824명은 본조사의 분석대상이었으며, 395명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론적 모형의 타당화 연구대상이었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대상아동은 각 연령별, 전체성별 모두 비교적 균등한 성별분포를 보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을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인으로 유아의 자기조절감을 선정하였다.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양육효능감 척도와 문헌들(신숙재, 1997; 조인경, 2004; 최형성, 정옥분, 2001; Allen, 1993; Coleman & Karraker, 2003; Johnston & Mash, 1989; Teti & Gelfand, 1991)을 기초로 연구자가 척도를 제작(조영숙, 이양희, 2007)하였다. 의사소통(8문항), 교육(8문항), 전반적 양육효능감(5문항), 통제(5문항) 요인,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척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양육효능감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6점에서 130점이다. 이 척도는 '통제' 요인에서 부정문으로 표현된 3개 문항은 역으로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부모로서 효능감이 많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각 요인별 내적일관성(Cronbach's α 값)은

.70~.86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일관성 $\alpha = .92$ 로 평가되었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안지영(2001)이 변안·수정한 Crick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를 선정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부모역할(6문항), 아동행동 특성(6문항) 요인으로 총 12문항이 선정되었다.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2점에서 60점이다. 이 척도는 12개 문항 모두 역으로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각 요인별 내적일관성(Cronbach's α 값)은 .67~.80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일관성 $\alpha = .81$ 로 평가되었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양육행동척도는 박성연과 이숙(1990)의 양육행동 척도와 Block(1984)의 CRPR(Child Rearing Practice Report)를 유우영(1998)이 참고로 하여 제작한 것을 선정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애정(4문항), 거부/통제(6문항), 독립성 지향(4문항)으로 총 14문항이 선정되었다.

양육행동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4점에서 70점이다. 이 중 부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거부/통제' 요인의 6문항은 역으로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각 요인별 내적일관성(Cronbach's α 값)은 .76~.82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일관성 $\alpha = .78$ 로 평가되었다.

4) 자기조절 척도

유아의 자기조절척도는 이정란(2003)이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제작한 것을 선정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행동억제(8문항), 자기결정(5문항), 정서성(3문항)으로 총

16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유아의 자기조절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6점에서 80점이다. 이 중 ‘정서성’ 요인은 낮은 상황이나 도전적인 상황에서 보이는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되는 것으로 역으로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이 뛰어나다고 어머니가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각 요인별 내적일관성(Cronbach’s α 값)은 .65~.81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일관성 $\alpha = .81$ 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별 측정도구의 문항수, 내적신뢰도 계수와 가능한 점수 범위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이 중에서 양육효능감 척도의 ‘통제’ 요인이 양육행동 척도의 ‘거부/통제’ 요인과 내용적으로 유사하여 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있고, 전체 이론 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낮아(4.58%) 최종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표 2> 변수별 측정도구의 문항수, 내적신뢰도계수 및 가능한 점수범위

변수	측정변수	문항수	가능한 점수범위	신뢰도	전체 신뢰도
양육 효능감	의사소통	8	8~40	.86	.92
	교육	8	8~40	.82	
	전반적효능감 통제	5	5~25	.78	
양육 스트레스	아동행동특성	6	6~36	.67	.81
	부모역할	6	6~36	.80	
양육행동	애정	4	4~20	.82	.78
	거부/통제	6	6~30	.76	
	독립성지향	4	4~20	.79	
자기 조절	행동억제	8	8~40	.81	.81
	자기평가	5	5~25	.67	
	정서성	3	3~15	.65	

3. 연구절차

연구는 크게 2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는 자기조절 및 양육관련 변인의 척도개발 단계로 2006년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어린이집 만 4, 5, 6세 아동의 어머니를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단계는 자기 조절 및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들간의 이론적 구조모형의 검증 및 교차타당화 검증단계로 2007년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간동안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1차 단계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을 사용하여 동일한 지역과 연령의 어머니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적합성이 입증된 구조방정식 모형을 다른 집단에 적용

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가를 알아보는 교차타당화 검증시에는 이론모형의 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연구대상의 특성 분석을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그리고 측정모형의 타당화 단계의 분석을 위하여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정의된 측정변수와 잠재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자료로 공분산행렬을 사용하였으며,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여 모수추정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과 유아의 자기조절간의 구조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방법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으로 위해 AMOS 4.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모수추정방식 또한 ML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관련변인간의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경로 A의 화살표는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Mash와 Johnston(1983)의 연구는 본 연구경로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경로 B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독립변인과 같은 외생변인의 기능을 한다. 즉 부모의 일상적인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행동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행동에서 부정적인 면에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 좀 더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들(Cumming, 1987; Featherstone, 2002)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경로 C는 양육스트레스가 자기조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력에 대한 많은 연구(Abidin, 1992; Deater-Deckard & Scarr, 1996; Snyder, 1991)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행동문제가 직접적인가 아니면 간접적인가(Crnic et al., 2005)의 여부를 밝히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경로로 설정하였다.

경로 D는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양육관련 변인의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국외의 연구(Ardeit & Eccles, 2001; Teti & Gelfand, 1991)와 국내의 연구(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유우영, 1998)가 보고되고 있으나, 반면에 일부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이 양육관련 변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Corpci & Wachs, 2002)는 불일치되는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양육효능감의 매개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로 설정하였다.

경로 E는 양육효능감이 자기조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양육스트레스가 자기조절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대인적응성, 발달적 수준, 과잉행동등과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으며, 상황적 스트레스를 포함한 여러 주요 변인을 증재하는 경향(Cutrona & Troutman, 1986)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경로로 설정하였다.

경로 F는 양육행동과 자기조절간의 직접적인 영향과 양육스트레스가 자기조절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유아는 양육자의 양육행동을 통해 자기 조절력을 촉진하고 양육자의 기준을 내재화하는 한다고 보고(Granlinski & Kopp, 1993)되고 있으며,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증재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련성에 관한 구조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모형 정립에서 가정된 변수들과 잠재변인간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이것은 Anderson과 Gerbing(1988)의 이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 즉, 측정모형을 검토한 후 구조모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따라 먼저 이론변수의 측정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한 것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쳐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와 전반적 합치도는 <표 3>과 <표 4>에 각각 제시하였다. 그 결과 T값이 모두 1.96이상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입증하는데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입증되었고,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들이 좋은 합치도의 기준인 .9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이론변수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론모형을 검증한 결과 가설적 연구 모형의 전반적 합치도 지수의 값은 $\chi^2 = 201.24$, 자유도(df) = 38, GFI = .96, AGFI = .93, NFI = .92, TLI = .90, CFI = .93, RMSEA = .07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자가 가정한 모형 중 양육효능감에서 자기조절로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경로를 고정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χ^2 의 차이는 0.02 (70.949-69.398)로 df가 1일 때 χ^2 분포에서 $p = .05$ 의 임계치인 3.84에 훨씬 못

〈표 3〉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측정변수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T값
양육스트레스	아동행동특성	1.00	.80	-
	부모역할	.84	.63	8.47 ***
양육행동	애정	1.00	.60	-
	거부/통제	.74	.48	7.12 ***
	독립성 지향	.81	.53	7.58 ***
양육효능감	의사소통	1.00	.74	-
	교육	1.11	.82	14.20 ***
	전반적효능감	1.21	.80	14.07 ***
자기조절	자기결정	1.00	.55	-
	행동억제	1.17	.69	7.92 ***
	정서성	.92	.49	6.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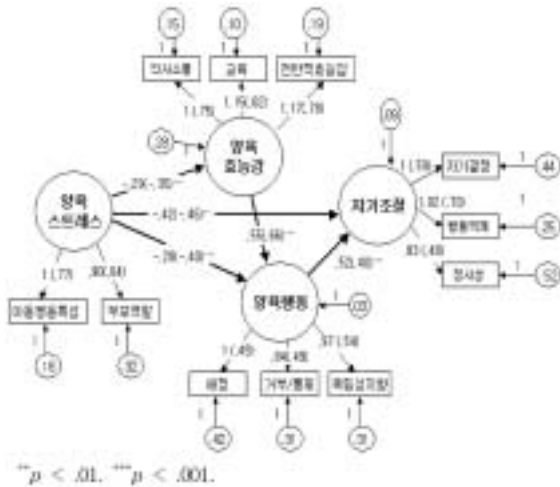
*** $p < .001$.

〈표 4〉 측정모형의 전반적 합치도

모형	χ^2	GFI	AGFI	NFI	TLI	CFI	RMSEA
가설모형	109.89(df = 38)	.95	.92	.91	.91	.94	.07

〈표 5〉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합치도 비교

모형	χ^2 (df)	GFI	AGFI	NFI	TLI	CFI	RMSEA	$\Delta \chi^2$
연구모형	201.24(df = 38)	.96	.93	.92	.90	.93	.07	
수정모형	201.26(df = 39)	.96	.93	.92	.91	.93	.07	.02



〈그림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수정모형의 검증결과

미치는 정도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χ^2 검증의 차이가 자유도에 비해서 작고, 부합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을때는 대개 간명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정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수정된 모형의 각 경로계수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수정된 구조모형의 전반적 적합도가 지지되었기 때문에 제시된 수정모형의 직접경로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외생변수인 양육스트레스(ξ_1)에서 내생변수인 양육효능감(η_1)으로의 직접효과를 보면 표준화 추정치가 $-.35$ ($p < .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행동(η_2)으로의 표준화 계수는 $-.40$ ($p < .001$), 자기조절(η_3)로의 표준화계수는 $-.46$ ($p < .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연구자가 가정하였던 가설의 방향성과 영향이 지지되었다.

〈표 6〉 이론 모형의 변수간 경로계수

경로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T값
양육스트레스(ξ_1) → 양육효능감(η_1)	-.29	-.35	-7.07***
양육스트레스(ξ_1) → 양육행동(η_2)	-.28	-.40	-6.37***
양육스트레스(ξ_1) → 자기조절(η_3)	-.42	-.46	-5.89***
양육효능감(η_1) → 양육행동(η_2)	.55	.65	9.86***
양육행동(η_2) → 자기조절(η_3)	.53	.40	5.39***

*** $p < .001$.

내생변수들간의 추정치 방향을 살펴보면 양육효능감(η_1)에서 양육행동(η_2)으로의 표준화계수는 $.65$ ($p < .001$), 양육행동(η_2)에서 자기조절(η_3)로의 표준화계수는 $.40$ ($p < .001$)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양육행동이 자기조절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연구자가 가정하였던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론 변수간의 구조적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에 나타난 이론변수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총 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 나타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35$), 양육행동과 자기조절에도 부적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은 양육스트레스($-.40$)와 양육효능감($.65$)의 직접적인 영향을 모두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은 양육스트레스($-.46$)와 양육행동($.40$)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양육효능감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집단별 모형의 적용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론적 모형이 다양한 집단에 적용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별로 분리하여 모형의 안정성을 입증하였다.

(1) 성별 모형의 적합도 검증

성별 모형에서 나타난 합치도의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으며, 각 경로계수는 〈그림 3〉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위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아/여아 모형의 전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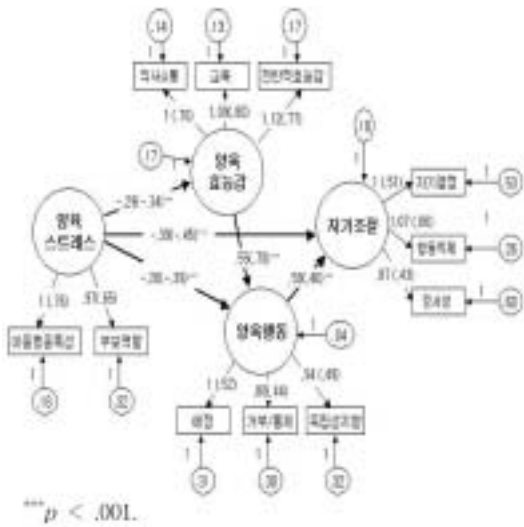
〈표 7〉 이론모형의 표준화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1. 자기조절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효과	-.42(-.46)	-.23(-.26)	-.65(-.72)
양육효능감의 효과	.29(.26)	.29(.26)	
양육행동의 효과	.53(.40)	-	.53(.40)
2. 양육효능감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효과	-.29(-.35)	-	-.29(-.35)
3.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효과	-.28(-.40)	-.16(-.23)	-.44(-.63)
양육효능감의 효과	.55(.65)	-	.5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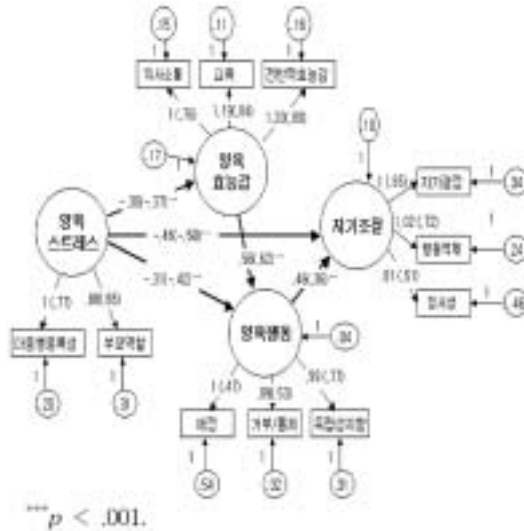
주. 숫자는 비표준화 추정치(표준화 추정치)임

〈표 8〉 성별 모형의 전반적 합치도 평가

모형	χ^2	GFI	AGFI	NFI	TLI	CFI	RMSEA	ECVI
남아모형	127.41(df = 39)	.95	.91	.89	.89	.92	.07	.44
여아모형	138.62(df = 39)	.94	.90	.90	.89	.92	.08	.48



〈그림 3〉 남아모형의 검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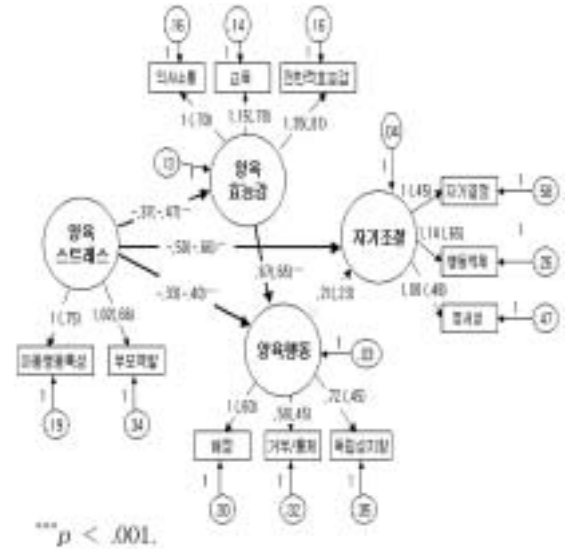


〈그림 4〉 여아모형의 검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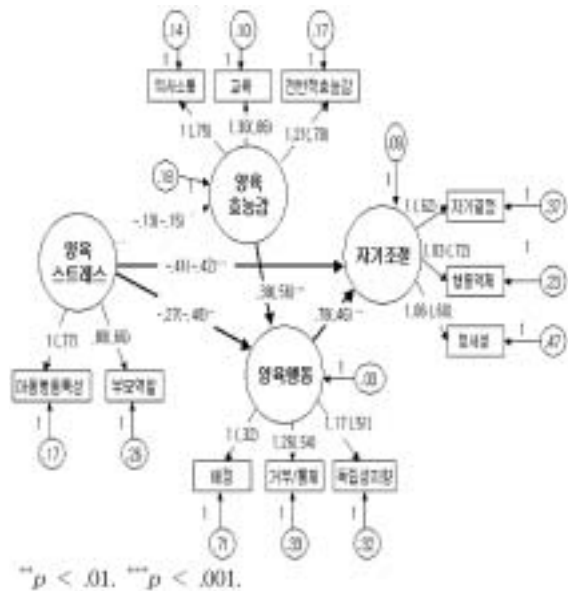
합치도 지수의 값은 $\chi^2 = 127.41/138.62$, 자유도(df) = 39/39, $GFI = .95/.94$, $AGFI = .91/.90$, $NFI = .89/.90$, $TLI = .89/.89$, $CFI = .92/.92$, $RMSEA = .07/.08$, $ECVI = .44/.48$ 로 각각 평가되었다. 위 모든 수치들은 좋은 합치도의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을 남아와 여아에게 적용하였을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연령별 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령별로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으며, 만 4세 유아 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5>, 만 5세 유아 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6>, 만 6세 유아 모형의 경로계수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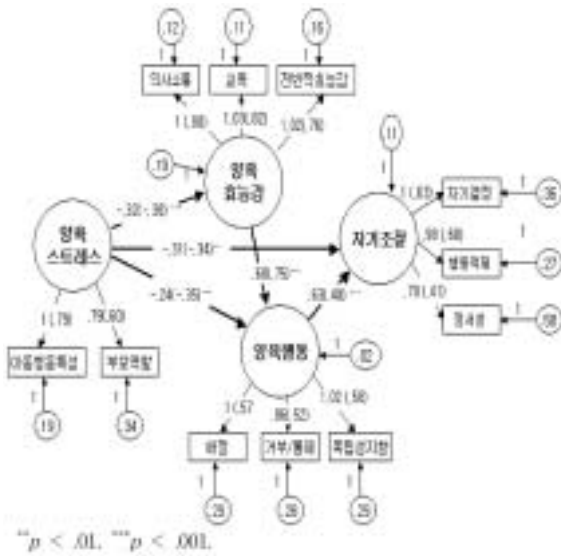
〈그림 5〉 만4세 유아 모형의 검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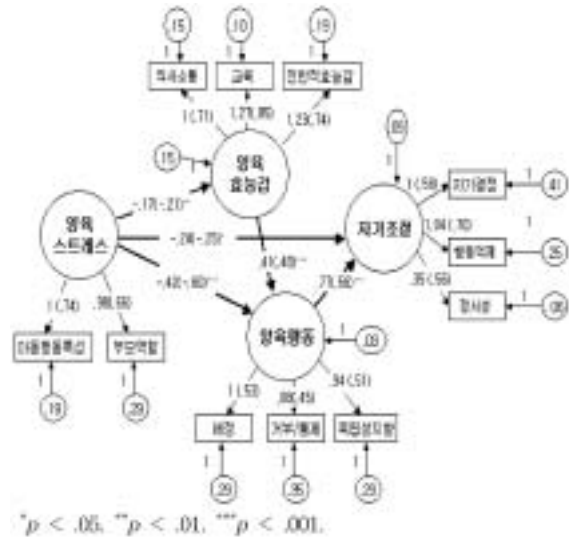
〈그림 6〉 만5세 유아 모형의 검증결과

〈표 9〉 연령별 모형의 전반적 합치도 평가

모형	χ^2	GFI	$AGFI$	NFI	TLI	CFI	$RMSEA$	$ECVI$
만4세유아 모형	85.38($df = 39$)	.94	.90	.88	.90	.93	.07	.56
만5세유아 모형	90.04($df = 39$)	.94	.89	.88	.90	.93	.07	.61
만6세유아 모형	99.05($df = 39$)	.95	.92	.91	.92	.94	.07	.46



〈그림 7〉 만6세 유아 모형의 검증결과



〈그림 8〉 교차타당화 모형의 구조모형 검증결과

그림 7)에 제시하였다.

위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만 4세/5세/6세 유아 모형의 전반적 합치도 지수의 모든 수치들은 좋은 합치도의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을 만 4세, 5세, 6세 유아에게 각각 적용하였을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모형의 교차타당화 검증결과

모형개발을 통해 가설적 모형이 입증되면 일반화를 위한 검토(cross-validation)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순목(1990)에 따르면 모형 찾기의 과정은 탐색적 과정이자 확인적 검증이 아니므로 일단 최종적으로 도달된 모형을 새로 수집한 자료에 적용시켜서 그의 부합도 평가 및 내용적 판단에 의거하여 그 모형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적 모형의 타당성을 교차타당화 절차를 통해 확인하였다.

교차타당화 분석결과 모형의 합치도 지수를 <표 10>에 제시하였고, 분석결과 모형의 검증결과는 <그림 8>에 제시하였다.

위 <표 10>에 제시된 바와 타당화 구조 모형의 전반적 합치도 지수의 값은 $\chi^2 = 115.98$, 자유도(df) = 39, $GFI = .95$, $AGFI = .91$, $NFI = .89$, $TLI = .89$, $CFI = .93$, $RMSEA = .07$, $ECVI = .43$ 으로 나타났다. 합치도 지수중에서 χ^2 값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0$)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합치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χ^2 통계량의 한계를 수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RMSEA는 .07로 일반적인 수용수준인 .05 ~ .08의 범위에 해당하며 그 이외의 다른 모든 합치도 지수들이 Bentler와 Bonett(1980)이 제시한 좋은 합치도 지수 .90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이론적 모형의 개발단계와 마찬가지로 양육효능감과 자기조절간의 경로가 본 연구의 모형에 부합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조절에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봄으로써 유아의 자기조절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1) 유아의 자기조절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였고, 2) 집단별로 나누어 적용해보았을 때에도 모형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별 검증을 하였다. 3) 마지막으로 개발된 이론적 모형이 새로운 표본에 적용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표 10〉 타당화검증 구조모형의 전반적 합치도 평가

모형	χ^2	GFI	AGFI	NFI	TLI	CFI	RMSEA	ECVI
타당화 모형	115.98($df = 39$)	.95	.91	.89	.90	.93	.07	.43

를 중심으로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과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는 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최종 모형의 합치도는 Bentler와 Bonet(1980)이 제시한 좋은 합치도의 기준에 속하는 .90을 넘는 매우 양호한 수준($GFI = .96$, $AGFI = .93$, $NFI = .92$, $TLI = .91$, $CFI = .93$, $RMSEA = .0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수들간의 경로와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자기조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어머니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부적인 영향은 선행연구에서 직접경로로 연구되기 보다는 주로 아동의 행동문제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는데(Abidin, 1992; Deater-Deckard & Scarr, 1996),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부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자기조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연구결과 자녀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무기력을 증가시키며 결국 아동의 양육에 영향을 주면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국내의 선행연구들(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최형성, 2001; Abidin, 1990; Mash & Johnston, 1983; Silverman, Bauman, & Iryesl, 199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없었으며, 이 결과는 Coleman과 Karraker(2003)의 연구에서 나타난 일부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 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양육스트레스의 부적인 영향이 양육행동이 매개되었을 때 줄어든다는 것이다. 부모의 일상적인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어 결과적으로 부모-자녀의 질을 손상시키는 양육행동으로 연결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Featherstone, 2002), 국내의 연구에서도 적극적인 참여행동이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저해한다고 밝혀졌는데(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유우영, 1998) 양육행동에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의 부적인 효과는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기조절간의 매개효과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Deater-Deckard(1998)의 연구에서 양육행동은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적응행동을 중재한다는 결과와 유사

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양육행동의 중재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사례(Gutermuth, *et al.*, 2005)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경로를 확인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자기조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엄마의 우울,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 등을 포함한 양육의 질적인 변인과 양육 행동간의 관련성을 탐색한 결과 양육효능감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Bugental, Blue, & Cruzcosa, 1989; Johnston & Mash, 1989; Teti & Gelfand, 1991)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다섯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연구자가 처음에 예상하였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양육효능감이 영아의 적절한 상호작용 행동 및 능력(Bohlin & Hagekull, 1987), 아동의 행동적, 발달적 수준(Coleman & Karraker, 2003), 과잉행동(Mash & Johnston, 1983) 등 다양한 측면과의 관련성을 갖는다는 선행연구들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또한 대인적응성(김현미, 도현심, 2004), 사회적 능력(문태형, 2002)등의 능력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국내 연구와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불일치되는 결과를 논의를 위해 먼저 Bandura(1989)가 강조하였던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Bandura의 양육효능감 측정에서 핵심적인 점은 구체적인 양육 지식을 강조한 것인데, 양육지식의 중요성은 다른 연구(Conrad *et al.*, 1992; Teti & Gelfand, 1991)에서도 고려해야할 변인으로 제안되었으며, 높은 양육지식은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양육방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Benasich & Brooks-Gunn, 1996; Stevens, 1984). 선행연구 결과들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점은 자녀의 발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진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행동보다는 자신의 기대에 따라 판단하고 그 기대에 자녀가 미치지 못할 경우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양육효능감과 부모의 양육지식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Conrad *et al.*(1992)의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은 높지만 양육에 대한 지식이 적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진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능력이 매우 낮았으며, 양육지식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효과적인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rad *et al.*(1992)는 단순한(naively) 양육효능감의 측정보다는 양육지식을 함께 고려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Hess, Teti와 Hussey-Gardner(2004)는 연구에서도 양육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

었는데,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양육지식이 낮으면서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아동의 발달에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양육효능감의 측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양육지식의 유용성에 대해 입증한 것은 Coleman과 Karraker(2003)의 연구이다. 그들은 아동의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측정도구와 과제 중심 양육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측정치와 아동의 행동과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던 반면, 과제중심 양육효능감 측정에서의 높은 점수는 아동의 행동과 긍정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효능감의 측정에 있어 구체적인 양육능력이나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경하(2009)가 영아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이 양육지식과 영아발달을 매개하는가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던 반면, 양육스트레스와 영아발달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양육효능감의 역할에 대해 연구에 따라 불일치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과 유아의 자기조절간의 관련성 탐색에 있어 양육효능감의 직, 간접 효과에 대해 보다 다각적인 연구들이 향후에서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특정 양육과제의 수행능력을 통한 양육효능감의 평가가 적절한가에 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Woodruff & Cashman, 1993) 있어 일지된 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향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조절간의 관련성 연구에 있어서 양육지식의 유용성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양육효능감이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연관이 되며(Johnston & Mash, 1989; Unger & Wandersman, 1985; Wells-Parker, Miller, & Topping, 1990),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아동의 발달과 연관이 있다는 국내의 연구(김현미, 도현심, 2004; 문태형, 2002)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곱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기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가 된 분야이며, 많은 연구(Bryant & Crockenberg, 1980; Cox, 1974; Crockenberg & Litman, 1990)에서 지지되고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임이 입증되었다.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후 성별, 연령별 경로를 살펴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가설적 구조 모형을 성별, 연령별로 적용했을 경우에도 안정된 결과를 도출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별로 구분하여 검증한 결과 양호한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집단별 모형을 가설적 연구모형에 따라 잠재변수들간의 경로와 효과를 검증한 결과 남아, 여아, 만 6세 유아의 경우 모든 경로가 이론적 연구모형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4세와 만 5세의 경우 일부 경로에서 차이를 보였다. 집단별 모형의 적용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은 성별, 연령별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김은영, 2005; Snyder, 199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성별, 연령별 관계없이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가 자기조절능력이 떨어진다고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 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남아 모형과 여아 모형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만 5세 유아 모형과 만 6세 유아 모형에서도 유의한 반면, 만 4세 유아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의 통제전략은 신체적인 것에서 언어적인 양식으로 이동하며 추론과 설득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ower, McGrath, Hughes, & Manire, 1994). 즉 나이가 어릴수록 시범을 보이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직접적인 양육행동이 효과적이며 언어적인 규칙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방식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기조절에 유의한 영향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 결과도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은 남아와 여아집단, 만 4세와 만 6세 집단에서는 유의미하였으나, 만 5세 집단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국내의 선행연구들(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최형성, 2001; Abidin, 1990; Mash & Johnston, 1983; Silverman *et al.*, 1995)의 결과와 불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다양한 요인(사회경제적 지위, 아동의 기질, 사회적 지원,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성 등)의 영향을 받으며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의 제안(Coleman & Karraker, 1997)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불일치된 결과가 단순히 연령차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해당 연령 유아 어머니들의 내적·외적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

향은 남·여아 모형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었으며, 만 5, 6세집단 모형에서는 유의하였으나 만 4세 집단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남·여아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들(김문신, 김광웅, 2003; 최지현, 2001)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특히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여아에 따라 성별 차이를 보인 반면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김문신, 김광웅, 2003; 유은희, 임미옥, 2006). 반면 유아의 자기조절에 연령에 따라 다른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이은주, 2004; Cole & Cole, 1989)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되었다. 이은주(2004)는 본 연구의 대상과 동일한 만 4세에서 만 6세아동을 대상으로 자기조절 능력의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만 4세와 만 5, 6세는 자기조절 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만 5세와 만 6세는 자기조절 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충동성을 억제할 수 있는 사려적인 사고가 만 5세경에 현저히 발달하며(Maccoby, 1980), 후속해 저장할 수 있는 조절능력도 만 5-6세경에 이르러야 한다는 연구결과(Cole & Cole, 1989)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남아와 여아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자기조절능력의 안정성을 보이는 만 5, 6세 이전연령에서는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가설적 구조 모형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집단에 적용해도 일반화가 가능한지를 알기 위하여 교차타당화(cross-validation) 검증을 통해 알아본 결과, 가설의 합치도는 매우 좋은 편이었다($GFI = .95$, $AGFI = .91$, $NFI = .89$, $TLI = .90$, $CFI = .93$, $RMSEA = .07$). 타당화검증의 목적이 이론적 구조모형을 타집단에 적용했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어 일반화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확실히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유아의 사회적 적응 및 후속발달의 기초가 되는 자기조절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변인들간의 구조적인 관계에 대한 탐색 연구가 부족한 현 실정에서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과 유아의 자기조절간의 관계를 밝히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적인 고찰을 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인지적 양육 변인중의 하나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척도의 부재로 인하여 양육유능성을 측정하는 척도중 하위 척도를 양육

효능감의 전체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거나 학령기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의 항목을 일부 변환하여 유아에게 적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본 연구는 다요인적 측정 전략이 양육효능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견(Bandura, Babaranelli, Caorara, & Pastorelli, 1996; Jones & Prinz, 2005)에 근거하여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로써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조절에 대한 구조모형을 개발하고 연령별, 성별집단에 적용하여 보다 세분화된 적용유용성을 검증하였으며, 더 나아가 본연구에서 개발된 이론적 구조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타당화 검증을 통해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서 바람직한 연구의 방향은 일반화의 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제안(김계수, 1991; 이순목, 1990; 홍세희, 2000)을 충실히 따른 것이며, 이러한 연구의 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는 후속 연구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가 부모치료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의미있게 활용됨으로써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연구자의 바람이다.

이상에서 밝힌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가지의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과 유아의 자기조절의 관련성을 설문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한 측정의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구 방법이지만 설문대상의 주관성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자연적인 상황에서의 관찰을 추가하여 비교한다면 보다 풍부한 자료를 통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을 대상을 어머니에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가정환경에서 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양육의 대상은 어머니이지만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로 인해 맞벌이가정이 늘고 있고 이전보다 아버지의 부모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관련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셋째, 유아의 자기조절에 영향을 주는 양육환경의 선행변수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양육효능감에 한정하여 살펴

보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득, 취업유무, 가족의 지지등의 다양한 외생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한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비록 일부의견이기는 하나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졌지만 발달과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어머니는 현실성이 없는 자기확신감으로 인하여 자녀의 발달과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역할을 좀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양육지식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이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역으로 자녀의 자기조절능력 따라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행동의 유능감이나 성취감이 달라진다는 연구들(Cutrona & Troutman, 1986; Gross, Conrad, Fogg, & Wothke, 1994)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다양한 상호관련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김계수(1991).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김문신, 김광웅(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6(1), 3-13.
 김미화(1997).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은영(2005).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훈육방식과 아동의 심리적 적응문제 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현미(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현미, 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김혜순, 강기숙(2005). 유아의 지능, 가정양육환경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17-26.
 문태형(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49-62.
 박성연,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박호선(2002).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유아의 자기조절 행동 발달간의 관계. 상명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안미경(1996).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양옥승, 이정란 (2003). 유아의 자기조절력 관련 변인간의 관계 분석. **교육방법연구**, 15(2), 143-159.
 유우영(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관련변인의 인과 관계.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유은희, 임미옥(2006). 부모의 정서표현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97-106.
 윤진주, 강신영, 이복주(2005).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의 관계성 연구: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5), 761-770.
 이경하(2009).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순목(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이은주(2004). 유아용 자기조절 척도의 표준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정란(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조영숙, 이양희(2007).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취학전 아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4), 97-112.
 조인경(2004). 어머니의 인식, 양육효능감, 유아의 인지능력, 공유하는 정서와 어머니의 유관조절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최지현 (200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통제와의 관계. **유아교육**, 10(1), 133-146.
 최형성 (2001).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최형성, 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5.
 한영민(2005). 부모의 정서표현 및 유아에 대한 정서표현 수

- 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bidin, R. P.(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21(4), 401-412.
- Allen, C.(1993). *An investigation of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USA.
- Anderson, J. C., & Gerbing, D. W.(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rdeit, M., & Eccles, J. S.(2001).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beliefs and promotive parenting strategies on inner-city youth. *Journal of Family Issues*, 22(8), 944-972.
- Bandura, A.(1989). Regulation of cognitive process through perceived self-efficacy. *Developmental Psychology*, 25(5), 729-735.
- Bandura, A., Babaranelli, C., Caorara, G. V., & Pastorelli, C.(1996). Multifaceted impact of self-efficacy on academic function. *Child Development*, 67, 1206-1222.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Rovine, M.(1990). Patterns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5-19.
- Benasich, A. A., & Brooks-Gunn, J.(1996). Maternal attitudes and knowledge of child rearing: Association with family and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67, 1186-1205.
- Bentler, P. M., & Bonett, D. G.(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ohlin, G., & Hagekull, B.(1987). "Good mothering" : Maternal attitudes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8, 352-363.
- Brenner, V., & Fox, R. A.(1998). Parental discipline and behavior problems in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9, 251-256.
- Bronson, M. B.(2000).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Nature and nurture*. NY: The Guilford Press.
- Bryant, B. K., & Crockenberg, S.(1980). Correlates and dimensions of prosocial behavior: A study of female siblings with their mothers. *Child Development*, 51, 529-544.
- Bugental, D. B., Blue, J., & Cruzcosa, M.(1989). Perceived control over caring outcomes: Implications for child abus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32-539.
- Cole, M., & Cole, S.(1989). *The development of children*. New York: W. H. Freeman.
- Coleman, P. K., & Karraker, K. 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leman, P. K., & Karraker, K. H.(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2), 126-148.
- Conrad, B., Gross, D., Fogg, L., & Ruchala, P.(1992). Maternal confidence, knowledge, and quality of mother-toddler interaction: A preliminary stud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3, 353-362.
- Corapci, F., & Wachs, T. D.(2002). Does parental mood or efficacy mediate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chaos upon parenting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8, 182-201.
- Cox, N.(1974). Prior help, ego development, and help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45, 594-663.
- Crnic, K. A., Gaze, C., & Hoffman, C.(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 117-132.
-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ockenberg, S., & Litman, C.(1990). Autonomy as competence in 2-year-olds: Maternal correlates of child defiance, compliance, and self-asser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961-971.
- Cummings, E. M.(1987). Coping with background anger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8, 976-984.

- Cutrona, C. E., & Troutman, B. R.(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Dadds, M. R.(1987). Families and the origi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Family Process, 25*, 341-357
- Deater-Deckard, K.(1998).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 314-332.
- Deater-Deckard, K., & Scarr, S.(1996). Parenting stress among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Are there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45-59.
- Diener, M. L., & Kim, D. Y.(2004). Maternal and chid predictors of preschool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24.
- Featherstone, B.(2002). Research review: Parenting stress and externalizing child behavior by J. Morgan, D. Robison, & J. Aldridge.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7*, 219-225.
- Granlinski, J. H., & Kopp, C. B.(1993). Every rules for behavior: Mother's requests to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9*(3), 573-584.
- Gross, D., Conrad, B., Fogg, L., & Wothke, W.(1994). A longitudinal mode of matern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difficult temperament in toddlerhood. *Research in Nursing & Heath, 17*, 207-215
- Gutermuth, L. G., Anthony, B. J., Glanville, D. N., Naiman, D. Q., Waanders, C., & Shaffer, S.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 133-154.
- Hess, C. R., Teti, D. M., & Hussey-Gardner, B.(2004). Self-efficacy and parenting of high-risk infants: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25*, 423-437.
- Johnston, C., & Mash, E. J.(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Jones, T. L., & Prinz, R. J.(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 341-363.
- Kendall, P. C., & Wilcox, L. E.(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rating scale.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1020-1029.
- Kochanska, G., DeVet, K., Murray, K., & Putnam, S. P. (1994). Maternal reports of conscience development and temperament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5*(5), 852-868.
- Kopp, C. B.(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Lengua, L. J.(2003). Associations among emotionality, self-regulation, adjustment problems, and positive adjustment in middle childhood.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24*, 595-618.
- Maccoby, E. E.(1980). *Social development: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Harcourt Brace Hovanovich.
- Mash, E. J., & Johnston, C.(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ren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on younger and older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86-99.
- Patterson, G.(Ed.). (1990).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family interaction*. Hissa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ower, T. G., McGrath, M. P., Hughes, S. O., & Manire, S. H.(1994). Compliance and self-assertion: Young children's response to mothers versus fa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80-989.
- Silverman, E. J., Bauman, L. J., & Iryes, H. T.(1995). Relationships of self-esteem and efficacy to psychological distress in mothers of children with chronic physical illness. *Health Psychology, 14*(4), 333-340.
- Silverman, I. W., & Ragusa, D. M.(1991).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the early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4), 415-435.

- Snyder, J.(1991). Discipline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stress and mood on child conduct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 263-276.
- Stevens, J. H.(1984). Child development knowledge and parenting skills. *Family Relations, 33*(2), 237-244.
- Teti, D. M., & Gelfand, D. H.(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Unger, D. G., & Wandersman, L. P.(1985).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 mothers: Action research contributions to theory and applic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1*, 29-45.
- Wells-Parker, E., Miller, D. I., & Topping, S.(1990). Development of control of outcome scales and self-efficacy scales for women in four life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564-575.
- Woodruff, S., & Cashman, J. F.(1993). Task, domain, and general self-efficacy: A reexamination of the Self-Efficacy Scale. *Psychological Reports, 72*, 423-432.
-
- 접 수 일 : 2009년 5월 8일
심사시작일 : 2009년 5월 8일
게재확정일 : 2009년 6월 5일